

'K팝 잔치'된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방탄소년단 8관왕 휩쓸어

'세븐틴', '베스트 3 앨범' 아시아 트로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 아티스트 상

일본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 'K팝 잔치'가 됐다. 17일 일본레코드협회 제35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K팝 인기 가수들이 주요 상을 휩쓸었다. 우선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 그룹의 성과가 돋보였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베스트 아시아인 아티스트'를 비롯해 총 8개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최다관왕 자체 신기록인 동시에 시상식 역사상 해외 아티스트 최다관왕 신기록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베스트 아시아인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빅히트 레이블즈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세븐틴'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일본 두 번째 미니 앨범 '24H'로 '베스트 3 앨범' 아시아 부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K팝 4세대 대표 아이돌로 떠오른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는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와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역시 K팝 4세대 아이돌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도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3월 현지 정식 데뷔 후 1년 만에 트로피를 안았다.

K팝 그룹뿐만 아니라 K팝 시스템을 적용한 현지 그룹들도 성과를 거뒀다.

JYP의 수장 박진영이 제작한 걸그룹 니주

(NiziU)는 '베스트5 뉴 아티스트', '베스트5 송 바이 다운로드', '베스트5 송 바이 스트리밍' 총 3개 부문을 거머쥐었다.

한일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 등을 배출한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일본판 '프로듀스 101 재팬'을 통해 결성된 제이오원(JO1)도 '베스트 5 뉴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일본 시장에 확연히 뿌리내린 K팝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은 일본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중 하나다.

한 해 동안 음반 산업 발전에 공헌한 아티스트와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음반과 비디오 등의 판매 실적에 따라 각 부문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현지 시장에 확연히 뿌리내린 K팝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K팝계에 일본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지만 미국에 이어 세계 음반시장 2위의 규모는 K팝 시장에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일본 역시 콘서트가 힘든 상황이지만, 피지컬 음반 시장은 여전히 공고하다. 현지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더라도 음반 판매와 그와 관련된 굿즈 판매 등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경민, 타키, 케이, 니콜라스, 의주

아울러 어릴 때부터 한류를 접한 10, 20대에게 K팝은 전혀 낯설지 않은 장르다. 빅히트의 자회사 빅히트 재팬이 '빅히트 재팬 글로벌 데뷔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할 신인 아이돌도 론칭한다.

엠넷 '아이랜드(I-LAND)'에 참여한 케이(K), 니콜라스(NICHOLAS), 의주(EJ), 경민(KYUNGMIN), 타키(TAKI) 등 5명이 첫 번째 주자다. 이들과 그룹으로 활동할 추가 멤버가 향후 합류한다.

하지만, K팝의 황금기를 경험한 일본 기성 세대에선 K팝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격세지감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다.

1990년대 일본 문화는 한국에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특히, J팝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일본 록 밴드 'X-재팬'과 '안전지대', 일본 아이돌 보이그룹 '스마프', 걸그룹 '스피드'와 '모닝구 무스메'의 인기는 소셜 미디어 없이도 대단했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문화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K팝이 선봉이 된 한국 문화의 일본 내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K팝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K팝 문화를 체험하려는 이들도 증가했다.

한류 확산의 조짐을 보인 지난 2013년 일본은 이에 대항한 '쿨 재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게임, 만화, J팝 등을 엮어 일본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K팝 선례 참고하며 미국 진출 본격화하는 J팝

결국 일본은 K팝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벡스가 미국의 대형 공연 기획사 AEG프러전츠와 손잡은 것이 예다.

에이벡스는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동방 신기 등 한류의 개척 그룹을 일본에 안착시킨 회사다.

AEG프러전츠는 콘서트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미국 진출을 도운 회사다.

두 회사는 새로운 합작법인 'AEGX'를 설립,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투어 등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 소식을 전하며 "AEG가 미국 진출을 도왔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매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에이벡스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구로이와 가즈미 에이벡스 CEO는 WSJ에 "수십년 동안 서양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와서 성공적인 공연을 했지만, 일본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큰 공연을 하지는 않았다. 이제 때가 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우식·김다미, 로코 '그 해 우리는' 주연

스튜디오엔, 드라마·웹툰 동시 제작

스튜디오엔은 첫 오리지널 드라마 '그 해 우리는'에 최우식, 김다미가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해 우리는'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로 헤어진 연인이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역주행 인기로 인해 다시 카메라 앞에 강제 소환 당하게 되면서 겪는 두 남녀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다룬 로맨스 코미디다.

최우식은 속 없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인생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서 숨겨둔 진심을 꺼내는 '최웅'을 연기한다.

김다미는 학생시절에는 1등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마음 속 상처를 안고 현실에 적응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국연수가 된다. 네이버웹툰 자회사인 스튜디오엔이 처음으로

로 선보이는 오리지널 16부작 드라마로 올 하반기 제작에 들어간다. 공개 방식과 일정은 미정이다.

회사는 드라마와 웹툰을 동시에 만든다. 드라마에서는 성인이 된 남녀주인공을, 웹툰에서는 드라마의 프리퀄 형태로 이들의 고등학교 시절이 다뤄지며 네이버웹툰을 통해 연재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웹툰 영상화 기획이 선 웹툰 연재 후 영상화 순서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그 해 우리는'은 드라마 기획이 선행되고 그에 맞게 웹툰을 동시에 연재한다.

스튜디오엔은 "타인은 지옥이다"부터 최근 '여신강림'까지 웹툰의 영상화를 선보였다.

첫 번째 오리지널 작품 '그 해 우리는'의 제작에 돌입하며, 앞으로도 장르와 매체 구분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빌레라' 송강 "발레리노 역할 고민, 5~6개월 발레 배워"

뒤늦게 발레 시작하는 스물셋 청년 '채록' 연기

배우 송강이 발레리노 연기를 위해 발레를 배웠다고 밝혔다.

송강은 16일 오후 진행된 tvN 새 월화극 '나빌레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송강은 뒤늦게 발레를 시작하는 스물셋 청년 '채록'을 연기한다.

송강은 "발레리노라는 역할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촬영 전에 5~6개월 정도 발레를 배웠다"며 "고난이도 동작이 많아서 전문적인 스kil 보다는 선이나 시선처리 등 디테일에 신경 썼다"고 말했다.

송강은 "'채록'은 '무뚝뚝하지만 내면은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라며 "저도 표현이 서툰데 채록이도 그런 것 같다. 공감이 많이 간다"고

했다. 한동화 감독은 "채록의 경우 낯설어하고 내성적인 배우를 원했다. 송강과 미팅을 하는데 몇 분 동안 둘 다 땀 흘렸었다"며 "잠 순수한 친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가질수록 엉뚱한 매력도 있고 좋은 인성, 좋은 외모를 가졌다 생각했다"며 "이 친구라면 채록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캐스팅 비화를 밝혔다.

'나빌레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박인환 분)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송강 분)의 성장을 그린 사제두 오 청춘기록 드라마다.

22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뉴시스



슈퍼주니어, 아이튠즈 전 세계 20개 지역 1위

정규 10집, QQ뮤직 등 중국 차트도 1위

그룹 '슈퍼주니어'가 정규 10집으로 아이튠즈 전 세계 20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17일 레이블 SJ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개된 슈퍼주니어의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The Renaissance)'는 아이튠즈 톱 앨범차트에서 전 세계 20개 지역 1위에 올랐다.

해당 국가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랍에

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폴란드,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싱가포르, 필리핀,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홍콩,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다.

또 이번 앨범은 QQ뮤직, 쿠팡뮤직, 쿠팡뮤직까지 중국 주요 음악 사이트 디지털 앨범판매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며 인기를

입증했다. 슈퍼주니어의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하우스 파티(House Party)'를 비롯해 '슈퍼(SUPER)', '번 더 플로어(Burn The Floor)', '파라독스(Paradox)', '클로저(Closer)', '우리에게(The Melody)', '사랑이 맞지 않게(Raining Spell for Love)(Remake ver.)', '미스터리(Mystery)', '같이 걸을까(More Days with You)', '하얀 거짓말(Tell Me Baby)' 등 총 10트랙이 수록돼 있다.

비(정지훈), '고스트 닥터' 출연

2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배우 정지훈(비)이 드라마 '고스트 닥터'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정지훈은 새 드라마 '고스트 닥터'에 주인공 '차영민' 역으로 출연한다.

'고스트 닥터'는 배경도 실력도 감각도 극과 극인 두 의사가 '얼결에 빙의'를 시작으로 영혼과 몸이 하나로 합쳐지며 벌어지는 스토리를 그린 고스트 메디컬 드라마다. 죽어서도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고스트 의사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다.

정지훈은 극 중 신들린 의술을 지녔으나 이

기적이고 오만한 천재 의사 '차영민'으로 변신한다. 어느 날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다른 의사에게 빙의하는 캐릭터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고스트 닥터'는 '장옥정, 사랑에 살다', '상속자들', '우리 갑순이'를 연출한 부성철 PD와 '명불허전의 김선수(김은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미남이시네요'를 시작으로 '주군의 태양', '그녀는 예뻤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남자친구' 등의 작품을 탄생시킨 박재홍이 제작을 맡았다.

'고스트 닥터'는 올해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질라 VS 콩', 지구공동설 '할로우 어스' 눈길

오는 25일 개봉

25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고질라 VS 콩'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는 지구공동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구공동설, 즉 할로우 어스(Hollow Earth)는 지구의 속이 텅텅 비어 있으며 그 비어 있는 공간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가설이다. 그 세계는 우리보다 수백 년 더 발달된 문명 속에서 다른 생명들이 살고 있으며, 양극(남극과 북극)에 그 비어 있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종 SF의 모티

브가 되기도 했고, 이후 지구 속에 별천지가 있거나 우리 인류가 현재 비어 있는 지구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러한 할로우 어스가 '고질라 VS 콩'에 등장한다. 우리 발명의 광대한 생태계인 타이탄의 서식지로, 타이탄들의 고향이 바로 할로우 어스이며, 콩이 살고 있던 스컬 아일랜드도 사실은 할로우 어스의 일부였다는 내용이다. 할로우 어스는 설정상 지구와 중력이 반대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부터 엄청난 모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껏 보지 못했던 놀랍도록 신비한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설정을 만날 수 있다.

